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는 진주를 줍는 백조다. 너희들은 백조들의 무리(한스 만들리)이다. 너희들은 행운의 별들인데, 왜냐하면 지식의 태양인 아버지 자신이 직접 너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 질문:** 아버지는 너희 모든 자녀들이 집중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빛을 주었는가?
- 대답:** 아버지는 너희에게 빛을 주었다: 자녀들아, 지금은 이 드라마의 끝이다. 너희들은 새로운 세계로 가야 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이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 순수하게 되어서 남들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큰 봉사이다. 이 빛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의 노력은 강력해진다.
- 노래:** 당신은 사랑의 대양입니다. 우리는 한 방울을 갈구합니다.

옴 산티. 너희 자녀들은 사랑의 대양, 평화의 대양, 희열의 대양인 무한한 아버지가 직접 앞에 앉아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지식의 태양인 아버지 자신이 직접 앞에서 가르치니, 너희가 참으로 행운의 별들이다. 황새의 만들리(무리)가 이제 백조의 만들리가 되었다. 너희들은 진주를 줍는 이들이 되었다. 너희들 모든 형제 자매들이 백조이며, 따라서 이것도 또한 백조의 만들리라고 불린다. 오직 지난 사이클의 사람들만이 지금 이때, 이 생에서 서로를 알아본다. 팔로킥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알아본다. 너희들은 5천년 전에도 그런 같은 이름과 형태로 서로를 만났던 것을 기억한다.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다른 어떤 생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본다. 바바, 당신은 바로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같은 자녀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시 한 번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자녀들이 서로 마주 앉아 있다. 그런 다음 그 이름과 형태 등은 모두 바뀔 것이다. 락쉬미와 나라얀은 그들이 지난 사이클의 같은 락쉬미와 나라얀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도 이 락쉬미와 나라얀이 지난 사이클의 같은 분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오직 지금 이 때에 너희 자녀들만이 이것을 안다. 지금 너희는 매우 많은 것을 알아 가고 있다. 전에는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나 자신이 합류시대에 와서 너희에게 나를 소개한다. 오직 무한한 아버지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세계의 창조와 낡은 세계의 파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이것은 그 둘의 합류이다. 이것은 매우 자비로운 시대이다. 황금시대나 철시대는 둘 다 자비로운 시대라고 불릴 수 없다. 너희들의 지금 이 생이 아주 귀중한 생이라는 것이 기억된다. 이 생에서 너희는 빈 조개껍데기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되어야 한다. 너희 자녀들은 진정한 신의 조력자들이다. 너희들은 신의 구세군이다. 신이 와서 너희를 마야로부터 해방시킨다. 너희들은 그가 특히 너희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세계를 마야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드라마에 정해져 있다. 이제 그 위대함은 누구의 것이냐? 자신의 행위가 위대한 사람들은 영광을 얻는다. 그러므로 위대함은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의 것이다. 지금 이 땅 위에는 죄 많은 영혼들의 큰 집이 있다. 겨자씨처럼 많은 인간들이 있다. 아버지가 와서 집을 없애 준다. 거기에는 오직 몇 천뿐일 것이니, 그것은 0.25%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드라마를 매우 잘 이해해야 한다. 신은 전능한 권위자라고 불린다. 이것이 드라마에서의 그의 역할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도 역시 드라마에 묶여 있다. “언제든지 극도로 의롭지 못함이 있을 때 내가 온다...”라고 쓰여 있다. 지금 바라트에서는 종교가 진정으로 모욕당하고 있다. 나도 모욕을 당하고 있고, 신인들도 모욕을 당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히 죄 많은 영혼들이 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들은 사토, 라조, 타모의 단계를 거쳐가야 한다. 너희들은 이제 이 드라마를 이해한다. 너희들의 지각 속에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 아버지가 와서 너희에게 깨달음을

준다. 지금은 이 드라마의 끝이다. 이제 너희는 다시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너희들이 받게 되어 있는 것이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 순수성 안에 모든 힘이 있다. 그것이 순수성의 위대함이다. 신인들은 순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인간들이 그들의 우상 앞에 가면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그들은 산야시들에게도 머리를 숙인다. 그들은 순수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다음에 기념물들이 만들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일을 많이 한다. 그들은 병원을 열거나 대학을 짓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도 역시 영광을 얻는다. 가장 위대한 이름은 모든 이를 정화시키는 분과 그의 조력자가 되는 사람들의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히 순수한 그 분과 요가를 함으로써 순수해진다. 너희들이 요가를 하면 하는 만큼 순수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의 마지막 생각이 너희를 목적지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다음 너희는 아버지에게 갈 것이다. 저 사람들이 순례를 할 때에는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순수함을 유지한다.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모두를 순수하게 만든다. 드라마를 이해하는 것도 아주 쉽다. 그는 계속해서 많은 내용을 너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다음 “오직 아버지와 유산만을 기억해라”라고 말한다. 누군가가 죽을 때에는 모두가 그에게 신을 기억하라고 일러 준다. 그런데, 신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 다음 그 사람이 몸을 떠나면 사람들은 그가 천국의 거주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신을 기억하며 몸을 떠나면 천국으로 갈 것임을 의미한다. 저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지도 못한다.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어느 누구의 지각에도 들어 있지 않다. 그들은 단지 “신을 기억해라”라고만 말한다. 영어로 그들은 “신, 아버지”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너희는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라 말한다. 저 사람들은 먼저 신이라 말하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라 말한다. 우리는 먼저 지고의 아버지라 말하고 나서, 지고의 영혼이라고 말한다. 그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다. 만일 모두가 아버지라면 “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런 작은 일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여 쉽게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불행해지면 지고의 아버지를 기억한다. 사람들은 육체의식을 갖는데 기억을 하는 것은 영혼이다. 만일 신이 모든 곳에 편재한다면 왜 영혼이 그를 기억하겠느냐? 만일 영혼이 행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영혼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나? 신봉의 길에서 신을 기억하는 것은 영혼인데, 그것은 그들이 불행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행복을 얻은 만큼 그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공부이다. 목표와 목적도 또한 명확하다. 여기에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은 모든 종교의 사람들을 안다. 지금 이때 모두가 와 있다. 신인 종교의 역사가 이제 다시 반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매 사이클마다 우리는 왕국을 차지한다. 유한한 연극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은 무한한 연극이다. 반 사이클 동안 우리의 적은 누구이나? 라반이다. 우리는 싸움을 해서 왕국을 얻지 않는다. 폭력적인 전쟁도 없고 누군가를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승리와 패배의 게임이다. 그러나 패배도 미묘하고 승리도 역시 미묘하다. 마야에게 패배당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패배한다. 마야를 정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사람들은 ‘마야’ 대신에 ‘마음’이라는 말을 집어넣었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 연극은 드라마에 예정되어 있다. 아버지 자신이 여기 앉아서 그의 소개를 해준다. 다른 어떤 인간도 창조자를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소개할 수 있겠느냐? 창조자는 오직 아버지 한 분이며,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왕국의 행운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은 신이 모든 곳에 편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창조자이다; 그들은 창조자가 없어지게 만들었다. 그들의 지각은 참으로 돌처럼 되었고 아주 불행해졌다. 그들은 단지 계속해서 자신들이 바이슈나브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찬양하기만 한다. 그것은 그들이 절반의 신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신인들이 바이슈나브였다고 생각한다. 사실 채식주의의 주된 의미는 비폭력을 자신의 지고의 종교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신인들은 확고한 바이슈나브라고 불린다. 이처럼 그들 자신을 바이슈나브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에서 바이슈나브 공동체는 또한 순수했었다. 지금 그 바이슈나브 공동체의 왕국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희는 브라민이 되었다. 너희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들이 있으니, 단연코 브라마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쉬바의 왕조, 프라자피타 브라마의 자녀들”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다. 쉬브 바바가 와서 브라민 공동체를 창조했고, 브라민들이 그 다음 신인들이 된다는 것이 기억된다. 지금 너희는 슈드라에서 브라민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도 매우 좋다. 그들은 비슈누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 비슈누와 그의 왕국은 다양한 형태의 사이클에 묘사되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바는 되새긴다. 너희들도 지식의 대양을 되새기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 모든 것들에 관해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일 등에 종사할 것이다. ??아침의 주님??이라는 말이 있다. 너희들이 앉아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면, 그는 “오호! 당신은 사람들을 인간에서 신인으로, 거지에서 왕자로 바꾸기 위해서 왔군요”라고 말할 것이다. 제일 먼저 알로키 봉사를 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육체적인 봉사를 하여라. 너희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어머니들은 대단히 훌륭한 봉사를 할 수 있다. 아무도 어머니들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에게 설명해야 한다: 야채 파는 사람, 잡화점 사람, 하인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빠졌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봉사에는 마음의 정직함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아버지와 완전한 요가를 해야만 하는데, 오직 그런 다음에야 이것을 훈습할 수 있다. 증기선을 모든 물품으로 가득 채워서 항구에 모든 것을 운반해 주러 가라. 그런 영혼들은 집에서 행복하게 머물 수가 없다; 그들은 계속 봉사를 하러 달려갈 것이다. 이 그림도 또한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것은 참으로 명확하다! 쉬브 바바가 브라마를 통해서 비슈누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 이것은 루드라의 지식의 희생의 불이며, 크리슈나의 지식의 희생의 불이 아니다. 이 루드라의 지식의 희생의 불에서부터 멸망의 불꽃이 나왔다. 크리슈나는 이 희생의 불을 창조하지 못한다. 84생을 살면서 그의 이름과 형태가 계속 변한다. 크리슈나는 다른 어떤 이름이나 형태 안에 존재할 수 없다. 크리슈나의 역할은 그가 그 형태에 들어 왔을 때에만 되풀이된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나마스테.

실천 요지:

1. 신의 참된 조력자가 되어라. 즉 신의 구세군이 되어서 모든 이를 마야에게서 해방시켜라. 이번 생에 빈 조개껍데기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되고 남들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라.
2. 바바가 지식의 대양을 되새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너희도 역시 지식을 되새겨라. 자비로워져서 영적인 봉사를 하며 계속 바쁘게 지내라. 정직한 마음으로 봉사해라.

축복:

“나의 것”임을 인식하며 사랑과 자비의 드리시티를 받고 힘으로 가득해져라. 자비의 대양, 밥다다는 아버지를 알아보고 “나의 바바”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그런 자녀들을 본다. 그러면 그는 답례로 영적인 사랑을 몇 백만 배로 준다. 자비와 사랑의 시선은 그러한 영혼들이 변함없이 전진할 수 있게 해준다. “나의 것”이라는 이 영적인 의식은 자녀들이 힘으로 그들 자신을 채우는 축복이 된다. 말을 통해서는 밥다다가 축복해줄 필요가 없는데, 모든 자녀가 계속 사랑의 미묘한 생각으로 부양받기 때문이다.

솔로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나 소유물에 대한 사랑은 가질 수 없다.

*** 옴 산티 OMSHANTI ***